

IV. 산업 정보

1. 환경문제 - 위협과 기회

- 기후변화협약, 폐기를 규제 등은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비용 증대로 인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
- 하지만 일본의 높은 에너지 사용 효율과 태양열과 같은 대체에너지 사용의 확대에서 알 수 있듯이, 환경 규제는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임

○ 기후변화협약의 산업별 명암

- 올해 업계 최대의 환경 현안인 기후변화 협약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함
- 기후변화와 관련된 '온실가스'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작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체결
- 이 협정에 따라 미국, 일본, EU는 화석연료 소비량을 삭감해야 하나, 그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남
-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「新日鐵」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을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
- 반면 세라믹과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본의 「교세라」는 화석연료의 대체연료인 태양 에너지 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태양열 제품의 판매 신장을 기대하고 있음

○ 일본의 기후변화협약 대응

- 일본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,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음
- 「교세라」는 '온실가스' 저감과 원유 수입 저감을 위한 정부의 태양 에너지 수요 촉진책에 따라 막대한 정부 보조를 받고 있음
- 「교세라」는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영국의 「BP Solar」 등 라이벌 기업에 대해 뚜렷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음
- 이번 회계연도에 일본정부는 신주택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열 집열판에 대해 110억 엔의 보조금을 그리고 산업계에서 태양열 에너지의 사용 촉진과 연구개발을 위해 14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
- 일본 업체들은 73년 석유 위기때부터 에너지 보존 노력을 지속해 왔음
- 따라서 일본 산업들은 선진국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음
- 그러나 일본 경단련의 이산화탄소 위원회는 이산화탄소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

이 예상되는 철강업계에 대해 생존차원에서의 자원 절감을 주문하고 있음

○ 유럽의 폐기물 대책

- 기업들에게 제품이나 생산공정에서 폐기물 최소화를 요구하는 정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. 특히 이러한 추세는 EU에서 가장 활발함
- 산업계로 하여금 2001년까지 포장 폐기물을 리사이클하거나 또는 절반은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EU 명령(directive)이 금년부터 시행됨
- 회사들은 리사이클링 방안을 등록한 연후에 폐기물 발생량과 신법 하에서 의무 이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함
- 금년 말 유럽의 환경장관들은 자동차와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 대해 의무적인 리사이클링 계획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, 이들 의무규정은 유럽기업들은 물론 유럽에서 복사기와 자동차를 판매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될 것임

(Financial Times, Jan. 13. 1998)

○ 시사점

- 기후변화와 폐기물 문제는 경영활동과 경쟁우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음
-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협약이 작년에 체결되고, 유럽에서는 포장 폐기물 규제와 리사이클링 계획이 강화되고 있음
- 교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1999년 당사국 총회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등 OECD 신규 가입국들은 선진국 의무 분담을 질 가능성이 있음
-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에너지 삭감의 충격이 큼
- 환경문제, 환경 친화성을 무기로 한 경쟁우위 확보 기회이기도 함
- 태양열 등 저공해 대체 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이 개선되면서 유리한 사업기회를 맞고 있음. 철강과 같이 환경규제의 영향이 유난히 큰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도 강력한 에너지 절약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
- 그리고 EU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폐기물 규제는 원활한 통상활동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폐기물 대책의 수립이 불가피한 점을 입증하는 것임

(채 영 배)